데스크시각

기현호

은퇴를 결심하는 시점

프로선수에게 가장 힘든 시기는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다. 운동선수로 뛰다 보면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찾아오는 것이고 다들 지혜롭게 이겨낸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노력을 하는데도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고민은 깊어간다. 거기다가 주변의 눈총이 쏟아지고 은근한 퇴진압력까지 들어오면 마음의 짐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른다.

선수에게 퇴진압력은 고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원한 스타, KIA 타이거즈의 이종범이 지난 6월 2군으로 한때 내려가면서 '은퇴문제'에 휘말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한국야구 최고의 선수로 군림했고 일본에서까지 이름을 날리며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그가 주변의 은퇴압력으로 겪었을 맘 고생을 짐작할 만하다. 야구천재 소릴 들은 그로선 동료·선배들이 그라운드에서 펄펄 날고 있는 지금 아직 은퇴를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는 언론과 인터뷰마다 은퇴에 대해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명예로운 은퇴'를 거론하는 주변이나 선배들에게 항변하듯 '은퇴가 명예로운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사뭇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홈런왕 배리 본즈도 내년에 그라운드를 떠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야구선수가 은퇴을 결심해야 할 시점은 언제일까. 다소 역설적인 실례지만 미국 프로야구 선수 블라디미르 게레로라는 선수의 얘기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LA 에인절스팀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별종'으로 불린다. 그렇다고 형편없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3할대의 타율을 유지하면서도 올해 올스타전 홈런더비(투수가 던져주는 공을 때려 펜스를 넘기는 홈런수로 순위를 다투는 이벤트)에서 17개를 넘겨 홈런왕에 오를 정도의 강타자다. 박찬호 선수가 한창 때 타석에서 마주하기가 가장 두렵다고 지목한 선수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배드 볼 히터'라는 것이다. 좋지 않는 공, 즉 스트라이크가 아닌 볼에 배트를 휘두르는 타자라는 의미인데 그는 나쁜 공에 자주 배트를 내민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렇게 친 공은 대부분 안타가 되고 만다. 선구안이 좋지 않아 볼에도 배트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이든지 자신이 있어 타석에 들어서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든다. 가운데보다 낮게 들어오는 공을 가장 좋아하는데, 심지어는 원바운드로 들어오는 공도 쳐 홈런을 만들 정도의 재주를 지녔다. 이쯤되면 투수들이 공을 던질 곳이 없게 된다. 박찬호는 던질 곳이 없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를 무서워했다.

마땅히 공을 던질 곳이 없는 투수, 공 던지기가 두려운 투수, 자신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게레로같은 타자들이 점점 늘어날 때 투수는 은퇴를 생각해봐야 한다. 어렵게 투스트라이크를 잡아 놓고도 결국은 결정구가 없어 매번 얻어 맞기만 하고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 선수는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한다.

자신의 상황은 자신이 잘알아

바꿔보면 타자의 은퇴 시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일단 타석에 들어서면 자신이 없고, 볼에 배트가 나가고, 쉬운 공도 제대로 쳐내지 못할 때 고심해야 한다. 공을 때리는 순간 손바닥으로 전해오는 부드럽고도 짜릿한 감각은 분명 홈런인데 외야플라이로 뚝뚝 떨어지고 수비시 전력질주해서 공을 쫓아 갔는데도 놓치는데,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유니폼 벗을 생각을 해야 한다.

이같은 기준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 선수뿐 아니라 감독도 마찬가지다. 성적이 오르지 않고 앞으로도 올릴 자신이 없으면 물러날 시점을 잡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도하 아시안게임과 지난달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벌인 핌 베어벡 축구감독의 중도사퇴는 당연한 것이다.

자신의 상황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 따라서 양심만 속이지 않는다면 은퇴를 결정해야 할 시점은 확연해진다. 비단 운동선수뿐 아니다. 냉혹한 자본주의에 발붙이고 사는 한 이런 판단기준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체육부장〉 kihh@kwangju.co.kr

사설

광주비엔날레재단 쇄신을 주목한다

신정아 공동총감독의 학력위조 파문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광주비엔날레가 14일 이사회를 갖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수 축소와 이사 임기 제한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관을 개정했다. 시민단체 등이 당연직 이사 축소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조직 개편을 환영한다.

정관 개정의 핵심은 당연직 이사의 축소와 이사의 임기 제한 규정 신설이다.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의 수를 기존 8명에서 광주시의회 의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을 제외한 6명으로 축소했다. 이사의 연임 횟수도 1회로 제한해 장기 재임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도 있다. 광주비엔날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선출직 이사의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율성과 민주성 부족 등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관만으로 보면 이사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재단의 주요 안건 의결 및 심의 기능을 비롯 예술총감독 선정과 비엔날레 전시방향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정아 총감독의 사태도 이사회의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핵심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이다. 비판론자들은 서울과 지역, 대학 안배 등으로 선출된 이사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미술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활동이 거의 없는 이사회가 재단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결하는 시스템에선 특정인의 독단과 전횡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광주비엔날레의 국제경쟁력 확보다. 재단 스스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 미술인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코앞으로 다가온 디자인비엔날레와 내년 광주비엔날레 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총체적 '안전 불감증' 드러낸 현대삼호重

지난 13일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현대삼호중은 지난 1일에도 대형 크레인 2대가 전복돼 2명이 사망했었다. 대형 안전사고가 2주가 채 안돼 잇달아 발생, 안전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사고는 중제관 선박 갑판 적재 작업장에서 인부들이 선박덮개를 가스용접기로 조립하던 중 작업장 주변 가스가 누출돼 용접 불꽃에 점화돼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원인은 안전 부주의가 빚은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사고현장에서 찢어진 고무호스형 가스관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용접공들이 찢어진 고무호스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작업을 한 것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지난 1일의 대형 크레인 전복사고도 작업 지시서는 물론 최소한의 방호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선박 설계기술이 유출돼 국외로 빠져나가기 일보 직전에 범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사고는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드러낸 것이다.

총체적 부실에 빠진 안전관리는 회사의 대외 신인도를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14일 주식시장에서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주가가 2.68%나 하락했다.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선박수주 등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세계 5위 규모의 대형조선소에서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대삼호중은 잇단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유사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송민석

피서지에 버려지는 양심

연일 33도를 웃도는 폭염주의보에다 열대야현상까지 지속되면서 가족단위로 떠나는 피서객이 급증한 금년 여름이었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여가문화 확산으로 피서객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의 휴가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산과 계곡은 버려진 양심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발걸음이 조금 뜸해진 피서지에 남은 건 오물들과 쓰레기 더미들이다. 나만 잘 놀고 가면 그만이라는 몰지각한 피서객들의 어긋난 피서문화의 소산이다. 매년 '후진국형 피서문화'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연례행사에 그치고 있다. 이러다가는 10년 후에도 '자기가 남긴 쓰레기는 되가져 갑시다'라는 부끄러운 구호가 되풀이 될 지도 모른다.

금년 들어 '바캉스 질서 지키기' 캠페인이 전국 유명 유원지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데다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유명하지 않은 곳일수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얼룩지게 만든 휴가철의 실종된 시민의식을 새삼 곱씹게 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은 자연보존이 잘 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곳들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일부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 때문에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취사행위가 금지된 계곡 주변에서 냄새를 풍기며 휴대용 버너로 고기를 굽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음식물쓰레기와 술병, 음료수 캔 등을 몰래 버리는 등 오물투기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쓰레기를 되가져가지는 못할망정 보이지 않는 수풀 속이나 꺼내기도 힘든 바위틈에 버리는 것은 우리의 피서지 양심 실종을 뜻한다.

내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떠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아쉽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데서 시작된다. 선진 문화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한 행동이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배려해 주는 정신이 너무 부족하다.

기초질서는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자 우리의 의식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그리고 사회비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정리되지 않은 서랍 속에서는 물건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무질서는 시간낭비와 비용을 초래한다. 소수의 무질서와 탈법이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로 이어진다. '나 하나쯤이야 어때' 하는 이기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 필요한 질서를 남에게만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항상 예외로 하기 때문은 아닐까?

문화시민으로서 성숙한 휴가문화를 즐기기 위해선 기(氣)를 살리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육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질서와 예절을 몸에 배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되어도 우리는 '정신적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천고등학교장·수필가·2006년 12월 수상자〉

기고

임내현

눈물로 본 '화려한 휴가'

지난 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았다.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구타당하고 살해당하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흘렀다.

80년 나는 임관한지 7개월 된 초임검사였다.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느라 광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5·18은 특별한 기억과 의미로 남아있다.

고교생 때 3선 개헌 반대데모에 참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국사회 전반의 모순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3선 개헌 반대 데모를 계기로 알게 된 한국사회의 어려운 현실은 컴퓨터 국산화 성취로 나라 발전의 주역이 되겠다는 내 진로마저 바꾸게 했다. 대학 3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 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직후 군에 입대했다. 1978년에는 상무대에서 군 검찰관으로 복무했고 1979년 5·18 진압부대로 편입되는 31사단의 법무참모 겸 검찰관 및 상무대 심판부장직을 맡아 근무 한 뒤 10·26 직후 전역해 검사 발령을 받았다. 우연히도 5·18의 현장을 비켜가게 된 셈이다. 그래서 더욱 나에게 5·18에 대한 소식은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다.

유신체제가 막을 내린 뒤 민주화를 향한 강렬한 기대를 품었던 시기, 광주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통행이 재개되자마자 광주로 달려가 눈과 귀로 그 처참한 상황을 확인했다. 내 탯자리인 금남로에서 벌어진 비극적 상황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당국의 공식발표와 너무나 다른 진상을 접하면서 큰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든 주변에서부터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검찰청 티타임 때 '광주에서 거의 학살에 가까운 군의 강경진압이 있었다' 고 말했다. 귀를 기울이는 젊은 검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위험한 발언'으로 치부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타 지역사람들에게 오해와 반박을 받으면서도 5·18의 진상을 전달하는 것은 나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2004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한 직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과 5·18묘역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난 역사의 아픔과 참상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왔다. 지난 6월 한 5·18 관련 단체의 지부 창립에 즈음해 요청받은 고문변호사직을 흔쾌히 맡은 것도 이런 심정과 맞닿아 있다.

광주의 위대한 희생은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6·10항쟁을 성공시켰고 이것이 한국을 민주국가로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 '화려한 휴가'를 보면서 더욱 깊이 새기게 됐다.

불의에 저항했던 그분들의 희생을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은 그 정신을 이어 조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창조적인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18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고 살아 숨 쉬는 현재이고 선진적인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변호사·전 광주고검 검사장〉

無等鼓

서브프라임 쓰나미

21세기에 발생한 가장 악명높은 해일 사태는 지난 2004년 12월 26일 발생한 수마트라 쓰나미(지진해일)다. 이 쓰나미는 순식간에 수마트라 해안을 쓸어버렸고 2~3시간 후에는 인도와 스리랑카를 강타했다. 총 사망자만도 16만명이 넘고, 30만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쓰나미로부터 구사일생한 사람들도 전염병으로 죽어갔다.

사전적 의미로 쓰나미는 해일의 일종이다. 하지만 형성 및 진행과정, 피해규모 등에서 폭풍해일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일본이 처음 붙인 이름 그대로 '쓰나미(지진해일)'로 부른다. 폭풍해일은 파도 크기가 폭풍에 의해 발생, 그대로 육지까지 전해지는 반면 지진해일은 바닷속 지진에 의해 수위 차이가 발생하고 해변에 도달하면서 집채만한 파도로 바뀐다. 바람 한 점 없던 해변이 갑자기 요동을 치면서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일찍부터 이 지진해일이 폭풍해일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쓰나미'라고 따로 이름을 지어 불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004년 이 수마트라섬 지진해일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쓰나미'라는 말이 생소하기 그지 없었다. 수마트라 대참사는 '쓰나미'라는 용어를 우리 귀에 익숙하게 했고, 요즘에는 어떤 분야에서건 위험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 곧잘 비유해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험이 '쓰나미'에 비유되고 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코스피지수 등 지구촌 증시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험으로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호황기 얻었던 수익과 원금을 한꺼번에 날리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쓰나미'가 우리에게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잇달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차제에 개인들이 '묻지마 투자'를 접어야 함도 물론이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동사무소 빈 공간에 보육시설 설치 어떨까?

세 아이를 키우는데, 현재 나와 있는 셋째 아이 보육 지원책은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높다는 이유 때문인데 그렇다고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나같은 이들을 위한 보육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우선 동마다 하나씩 있는 병설유치원에 6세반을 의무적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지원시 셋째 아이는 추첨 없이 무조건 입학이 가능토록 했으면 좋겠다. 또 요즈음 새로 지은 곳이나 증축한 곳에는 공간 여유가 많다. 주민문화센터나 헬스클럽 운영도 좋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가끔 동사무소에 가서 넓고 좋은 시설의 공간 대부분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런 시설을 갖춘 동사무소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까?

빠듯한 살림에 세 아이를 키우면서 보육지원책 발표가 나올 때마다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 열심히 귀 기울여 보지만 결과는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이거나 출산율을 높이는 쪽이다. 정부가 조금만 생각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손혜정·광주시 광산구 대산동

자판기 음료수, 유통기한 표기 통일해야

사무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빌딩에 음료수 자판기를 2대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얼마 전 한 손님이 자판기에 적혀있던 긴급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걸어왔다.

손님은 "요즘같은 한여름에 자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냐, 자판기 안에 유효기간이 지난 음료수를 넣고 팔면 되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마침 자판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얼른 그쪽으로 달려갔다. 손님을 만나 음료수 밑에 찍혀있던 날짜를 보니 실제로 올 2월로 돼있었다. "죄송하다"며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배탈이라도 나면 연락을 주십시오"하고 부탁했다.

내가 얼른 달려와 사과하는데다 고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화가 풀린 손님은 알았다며 돌아갔다.

서둘러 그 음료수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했더니 그곳에 찍힌 날짜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조일자이기 때문에 아직 유효기간은 1년도 더 남았다고 하는게 아닌가. 다른 제품을 봤더니 거기는 또 제조일자가 아닌 유통기한이 써 있었고 표기된 위치도 서로 달랐다.

그동안 바빠서 유통기한 같은건 신경 안 썼는데 이렇게 일이 터지고 보니 어떤 제품은 제조일자를 기재하고 또 어떤 제품은 유통기한을 기재하고 있었다. 물건을 판매하는 내가 화가 날 정도이니 소비자들이야 얼마나 더 화가 나고 분통 터지겠는가.

▲정수민·광주시 남구 봉선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판매부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